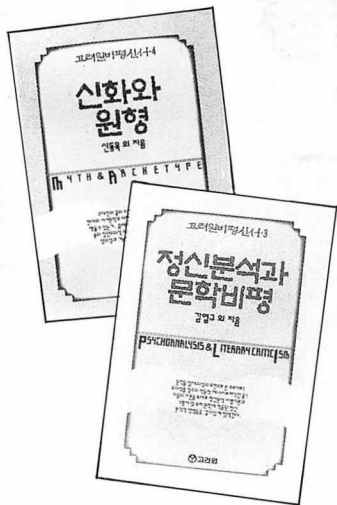


# 20세기 대표적 비평이론의 수용

‘고려원 비평신서’ 시리즈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비평이론이나 문학이론을 모아 소개하는 ‘고려원비평신서’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신비평과 형식주의」에 이어 출간한 두권의 저서.

정신분석 비평의 수용사와 그 실제 작품세계의 분석을 보여준 「정신분석과 문학비평」(김열규 외 지음)은 문학을 잠재의식의 표현으로 본 프로이트와 무의식을 창조의 역동적 에너지로 파악한 융의 이론이 어떻게 예술에 적용되는가를 9편의 논의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인간의 성욕이 주체를 구성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정신분석의 이론이 문학비평에서는 어떻게 수용되는가. 그 답변을 이 책에서는 고전적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의 비평과 이론을 다룬 글들로서 대신한다. 「정신분석학과 문학비평」(L. 러너) 「문예비평에 있어서의 칼 융」(J. 베어드)이 그것.

또다른 한 부류로는 정신분석 비평의 한국적

상황을 다룬 글로서 김열규의 「현대문학과 정신분석」 김준오의 「한국문학과 정신분석」, 이승훈의 「현대시와 프로이트」 그리고 「문학의 심리학적 연구」(김시대)와 「이효석 작품에 있어서의 몇개의 모티브에 대하여」(주종연) 「李箱의 인간사와 정신분석」(조두영) 「한국 현대시의 정신분석학적 해석」(마광수) 등을 수록하고 있다.

융의 ‘집단무의식’은 곧 그 상징과 이미지의 보편성의 의미를 낳으면서 문학속에 내재된 인간무의식의 심층을 새롭게 연구하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신화와 원형」(신동욱 외 지음)에 실린 6편의 글들은 이러한 인류보편의 상징과 주제가 함축된 신화와 문학의 관계를 이론으로 정립한 신화비평의 대표적 논의를 소개한다.

「신화비평이란 무엇인가」(S. 그랩스타인) 「신화비평론서설」(신동욱)에서 신화비평의 이론을 소개하는데, 인류공동체의식, 원초적 인간의식을 강조하는 신화비평은 예컨대 엘리엇, 제임스 조이스가 원용한 신화적 구성에서 현대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충실감으로 제시된다. 또한 「한국고대 서사문학의 원형」(황폐강) 「‘광야’의 씨앗」(김열규) 「한국 현대시의 두 세계」(오세영) 「영원회귀의 문학」(김병욱) 등은 한국의 보편적 신화와 원초적 이미지가 어떻게 문학으로 창조되고 융화됐는가를 신화비평에 의해 분석한 대표적 글들이다.

고려원 / A5신 / 각 214, 224면 / 각 4300원

# 과학사의 핵심적 내용 체계화

민음사 ‘과학사 총서’ 시리즈



과학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책들의 대부분이 개론서나 흥미위주의 ‘뒷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하에 과학사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시리즈가 기획돼 눈길을 끈다.

‘과학사 총서’(민음사) 시리즈가 그것으로 “과학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학문적 업적을 반영하면서도 비교적 넓은 독자층의 관심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 균형있고 평이하게 엮어진 책”들을 선정, 소개한다는 것이 기획의도.

최근 동시에 출간된 이 시리즈의 1, 2권은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각각 중세 및 근대과학의 여러측면들을 폭넓게 다룬 책들이다.

「중세의 과학」(에드워드 그랜트 / 홍성욱·김영식)은 고대 로마제국에서 AD. 1500년경

까지 중세 서유럽에서 형성된 과학의 중요한 발전들과 해석들을 기술한 책. 현재 인디애나대 교수이며 중세 자연철학 및 우주론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손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암흑기부터 중세말기에 이르기까지 중세 서유럽에서 행해진 자연에 대한 탐구가 신학, 철학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발전했고, 또 그러한 발전의 성과물과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과학을 중심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여러대학에서 과학사 초급과정의 중세과학강좌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중세과학 분야의 대표적 입문서이다.

16, 17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과학혁명’은 오늘날의 과학의 기반인 근대과학을 형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와 사상의 형성 및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근대과학의 구조」(리처드 S. 웨스트팔 / 정명식의)는 과학혁명기 유럽사상의 지배적 조류였던 ‘기계적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과의 관련 속에서 여러 과학 분야들의 혁명적 변화를 설명한 책. 뉴턴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사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혁명의 핵심적 내용과 그 사상적 배경을 일관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과학혁명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관련 그림들을 함께 수록, 과학혁명 당시의 현장을 보는 듯한 생동감과 흥미를 아울러 제공한다.

민음사 / A5신 / 각 184, 246면 / 각 5000, 6000원

## 이의용 컬러 예화집



1집 : 신국판 / 150쪽 / 2,800원  
2집 : 신국판 / 150쪽 / 3,300원  
3집 : 신국판 / 176쪽 / 3,500원

대림기획 TEL 268-4902  
FAX 277-6946

## 돈이 보낸 편지

가슴으로 읽는 현대판 명심보감  
드디어 3권 1질 완간!!

「돈이 보낸 편지」는 동서 고금의 교훈적인 예화로, 총 252편의 이야기가 3권에 나누어 실려 있다. 짙막한 글과 그림으로 편집되어 있어 남녀 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특징.

그 어떤 웅변보다도 질은 감동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어, 단 한 편으로도 인생의 참된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책!

## 대림기획소설선

1 젊은 날의 일기  
김원일·이문열 외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13인의 작가들이 젊은 날의 고뇌와 방향이 있었던 시절에 썼던 13편의 「내가 숨긴 소설」을 모은 신선한 작품. 왜곡된 현실에 부딪힌 젊은 날의 내면적 방황과 의식세계를 투명한 언어와 참신한 감각으로 그리고 있다.

신국판 / 270쪽 / 4,000원

2 변명  
권태현 지음

이 소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감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문체로 그리며 때로는 배꼽을 움켜잡는 폭소를, 때로는 눈물이 펄 돌게 하는 진한 감동을 전해 준다.

신국판 / 250쪽 / 3,800원

3 추억의 노래  
김주영·정호승 외

우리 시대 대표작가들이 젊은 시절 고뇌와 방황, 사랑의 비애, 그리고 문학의 열병 속에서 써 두었던 습작소설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지난 날 작가가 되고자 방황했던 시절을 특유의 감각과 감성으로 터치하고 있어 습작기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줄 수 있다.

신국판 / 286쪽 / 4,200원

# 일본문화의 정신적 뿌리 조명

영화당 '일본의 전통연희' 시리즈



노오, 교겐, 분라쿠, 가부키 따위의 일본의 전통연희는 중세 이후의 일본인의 심성이 살아 있는 정신문화의 바탕이며, 현재까지도 거의 매일같이 전국에서 상연되는 일본의 국민적 연희이다.

이러한 전통연희를 통해 일본문화의 뿌리와 현재를 새롭게 조명해보기 위해 시도된 '일본의 전통연희' 시리즈의 전4권중 2권이 우선 출간됐다.

제1권 「能」은 매우 양식화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으며 엄숙하고 제의적인 예능인 '노오'에 관한 입문서다. 1, 2부로 나누어 제1부 '노오란 무엇인가'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노오의 역사, 무대, 탈, 그리고 노오를 예술적 형태로 완성시킨 제아미, 간나미 부자에 관한 내용을 소개, 노오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있다.

제2부 '風姿花傳'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노오 연희자이며 이론가이기도 했던 제아미의

역작 「風姿花傳」을 우리말로 완벽한 것이다. 여기에는 연희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실제 상연에서 갖추어야 할 분장법, 연기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제아미 예술론의 중심을 이루는 '꽃'과 '유현'의 개념은 노오의 공연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노오의 미적 진수를 확인케 한다.

제2권 「狂言」은 대중성이 풍부한 잡예의 형태를 띤 일본의 전통연희인 '교겐'에 관한 해설서이다.

교겐은 노오와 구별되지 않은 하나의 형태로 발달되어 오다가 14세기경 제아미 시대에 이르러 노래와 춤이 중심을 이루는 노오와 분리된 대사 중심의 일종의 笑劇이다. 제1부 '교겐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를 풍자적이고 희극적으로 묘사한 교겐의 역사, 유과, 노오와의 관계, 등장인물, 연기와 연출, 특성 등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未廣」「武惡」등 교겐 희곡 6편을 수록, 이해를 돕고 있다.

일본 모모야마학원대학에 재직중인 김학현 교수가 번역, 저술을 맡은 이 시리즈는 앞으로 3, 4권으로 「文樂」「歌舞伎」등을 출간할 예정. 영화당 / A5신 / 각 128면 / 각 5500원

# 유아 특성 고려한 만화 이야기

웅진문화 '뿌뿌의 그림일기' 시리즈(전3권)



만 4세 이상의 유아가 실제로 겪을 만한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담은 그림책 시리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쟁이이며 말쑥꾸러기인 여섯살짜리 남자아이 솔이와 그의 단짝친구이자 특유의 재치로 솔이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뿌뿌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이 시리즈의 특징. 전 3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권마다 3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권 「꾸러기 솔이」는 '솔이가 텔레비전만 봐요' '솔이가 팽이를 못찾아요' '솔이가 밥을 잘 안먹어요' 등 3편의 이야기를 수록. 텔레비전 앞에서 살다시피하고 어지르는 데는 선수이며 밥투정과 편식을 일삼는 솔이의 나쁜 버릇을 뿌뿌의 기발한 행동과 재치로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솔이와 뿌뿌가 동네의 또래 친구랑 어울려 놀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2권 「솔이와 골목친구」에는 '솔이가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솔이가 병원놀이를 해요' '함께 놀면 더 재미있어요' 등 3편으로 구성.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솔이와, 병원놀이에서 서로 의사가 되겠다고 싸우다가 뿌뿌의 재치로 다시 어울려 노는 또래친구들의 모습, 새로 산 자전거를 혼자 타고 빠기던 솔이가 함께 노는 기쁨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줄거리. 유아발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의 여러 양상들을 올바르게 익혀나가는 모습을 제시한다.

제3권 「달님반 솔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솔이의 이야기이다. '솔이도 춤을 잘 추어요'에서는 수줍음을 잘 타는 솔이가 유치원 생활을 통해 활달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변화하는 모습을, '솔이는 선생님이 좋아요'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솔이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마지막 '동물원에 갔어요'에서는 개인행동으로 소풍을 엉망으로 만든 솔이와 뿌뿌가 책임감과 규율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권이 울컬러 양장본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유아발달 특성을 고려한 글의 짜임새와 내용, 화면 분할, 색채 등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글과 그림은 각각 이지현, 박경진씨가 맡았다.

웅진문화 / B5변형 / 각 32면 / 각 3000원

현대 영국문학을 대표하는 그레이엄 그린 최후의 장편소설!

## 기억의 초상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20세기 최후의 사랑의 신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는 카멜레온 같은 남자가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온 불행한 여자에게 바치는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 이야기.

「기억의 초상」처럼 뛰어난 작품을 통해 당대 최고의 작가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프랑스 킵

한국어판 독점계약  
250쪽 값 4,000원

## 종이시계

Breathing Lessons

올해의 베스트셀러!

종이는 순간, 시계는 영원을 상징합니다. '종이시계'로 소중한 분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종이시계'가 작품성만으로 (베스트셀러) 선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문학 독자들의 감식안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조선일보(1991. 11. 24.)

앤 타이러 지음/장영희 옮김 390쪽 값 4,600원

동문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80-22  
전화 : 336-6615 팩스 : 325-0265

## 토담

CLAY WALLER

김난영 장편소설

엄마, 순조선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요!

미국의 극심한 인종차별과 문화적 갈등을 딛고 일어서는 한국계 이민자들의 삶과 투쟁.

당신은 은밀하고도 생생한 이 소설의 세계에 초대된 것을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다. —뉴욕 타임스



426쪽 값 4,600원